

충청남도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2019. 1. 30.(수) 15:00
- 장 소: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
- 주 최: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진행 안내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9. 1. 30.(수) 15:00 ~
- 장 소: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주 제: 충청남도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 개 회 식 >				
15:00	15: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입법예산정책담당관 정책지원팀장
15:05	15:10	5'	내빈소개, 개회사 등	김옥수 부위원장
< 토 론 회 > ※좌장: 조삼혁 센터장				
15:10	15:40	30'	주 제 발 표 ▸ 김재우 / 공존플랜 책임연구원 ☞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	
15:40	16:30	50'	지 정 토 론 ▸ 류순희 / 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우복남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김옥수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강완규 / 다문화청소년 부모 ▸ 이병례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교육과 다문화국제교육담당 장학관 ▸ 정낙도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장	토론자 전체
16:30	16:55	25'	종 합 토 론	참여자 전체 (발제자·토론자·청중)
16:55	17:00	5'	정 리 및 폐 회	좌 장 김옥수 부위원장

목 차

■ 주제발표

- ☞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 3
김재우(공존플랜 책임연구원)

■ 지정토론

- ☞ 다문화청소년 현황과 시사점 13
류순희(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23
우복남(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29
김옥수(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를 기대하며 31
강완규(다문화청소년 부모)
- ☞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33
이병례(충청남도교육청 학교교육과 다문화국제교육담당 장학관)
- ☞ 2019년 충청남도 다문화청소년 지원 계획 35
정낙도(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장)

주제 발표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

김 재 우

공존플랜 책임연구원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

김 재 우

공존플랜 책임연구원

1. 정책환경의 변화

-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가 한국사회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님.
-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다문화’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¹⁾’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는 176만 4,664명으로 총 인구(51,269,554명)의 3.4%에 달하고 있음. 이는 전라남도(1,796,017명)와 충청북도(1,603,404명) 사이에 해당하는 규모임.
- 외국인주민에 포함되는 집단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등의 장기체류외국인과 귀화자 및 외국인주민의 자녀 등 임.
- 외국인주민 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 중 특히 결혼이민자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교육, 진로 등 성장발달의 측면에서 한국가정 자녀들과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지난 10여 년간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행하여 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음. 그러나 현재의 정책 환경은 초기의 그것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전히 변화가 진행 중임,
 - 대표적인 변화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성장임.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2014년 67,806명, 2015년 82,536명, 2016년 99,186명, 2017년 109,387명/교육부, 2018). 그 중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전국 초·중등학교의 다문화학생 수²⁾를 보면, 초등학교는 8,761명이 증가한 82,733명으로 11.8%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865명 증가한 15,945명으로 전년

1)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행안부)

2) 2018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 (교육부)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는 518명 증가한 10,334명으로 전년 대비 5.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여전히 초등학생의 비율이 높지만 점차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몇 년 이내에 중·고등학생으로 성장할 것으로 더 이상 기존 초등학생 위주의 정책으로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맞는 대책이 마련될 수 없는 실정임.
- 전체학생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8만 명 내외로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학생은 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음.
- 지난 10년 동안 다문화청소년의 이주배경은 다양화하여 왔음.

국제 결혼 가정	국내 출생 자녀	■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은 없으나, 학습에 필요한 문장이나 어휘를 이해 하는데 곤란을 겪는 경우 존재 ■ 사춘기에 진입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불편함을 느끼며, 심리정서 지원 요구
	중도 입국 자녀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한국인과 결혼 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 새로운 가족과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정체성 혼란이나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경우 존재 ■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공교육 진입과 적응에 어려움 발생
외국인 가정	외국인 가정 자녀	■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 정주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존재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출처: 교육부, 2018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

- 중·고등학생과 성인 전기의 청소년(18세~24세)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준비가 필요하며, 진학, 진로, 취업, 군대 등 다양한 청소년 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2. 다문화청소년 실태

가. 경제적 어려움

- 다문화 가족의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빈곤층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또한 2010년 실시된 연구결과³⁾에 따르면, 가족 경제상황에 대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20% 정도가 ‘어려운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의 일반학생과 비교할 때, 자신의 가정형편을 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2010년, (재)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다문화가정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 가정형편에 대한 인식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가정형편을 더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자녀 양육의 문제

-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문화권으로부터 모두 영향을 받으며 언어나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겪는 등 지역사회 내에 통합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2010년 발표된 한 정책연구⁴⁾에 따르면, 이혼 또는 사별한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흔히 직면하는 것이 자녀양육의 문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취업을 뒷받침할 만한 안정적 자녀 양육 환경은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임. 자녀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언어적 취약성과 교육에 관한 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상황은 보육시설, 학교와 같은 공적 시설에 전적으로 자녀의 교육을 의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양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나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형성에 어려움 등 예상됨.

다. 정체성 및 심리·정서적 문제

-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도 이들을 위한 초기적응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실시한 연구⁵⁾ 결과를 보면 외국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한 대부분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심리적인 고독감과 외로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기의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낯선 곳으로의 이주로 인한 스트레스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본국에서 가지고 있던 인적 네트워크(친구, 친지, 교사 등)를 상실하고 고독감과 외로움 경험하게 됨.
-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과 더불어 언어적 장벽이 이들의 사회 진출에 장애물
- 또한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에 낯선 환경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자신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경우도 있음.

4) 2010년,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

5)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2009), 다문화아동·청소년 초기적응프로그램 개발방안 연구.

라. 교육 및 학업의 문제

- 최근까지 이루어진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는 언어발달 지체를 보이거나, 문화부적응 등을 경험하면서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⁶⁾
 - 경기도 다문화청소년실태조사⁷⁾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교생활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가 힘들다.’, ‘숙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로 나타났다. ‘준비물을 잘 챙겨오지 못한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친구들이 놀리고 괴롭힌다’, ‘선생님이 불친절하거나 나를 차별한다’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음.
 -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소외나 놀림 및 차별 등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인 문제도 학교생활이 어려운 요인이지만 보다 큰 이유는 학교공부나 숙제, 준비물 등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함.
 - 학교 내에서의 놀림, 차별 및 따돌림의 경험에서도 응답한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20.8%가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초등학생이 25.8%, 중학생이 17%, 고등학생이 14.8%로 초등학생의 경험율이 고등학생보다 2배 정도 높았음.
 - 놀림이나 차별, 따돌림의 이유로는 ‘엄마나 아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가 36% 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말이 통하지 않아서’, ‘나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외모가 달라서’의 순으로 응답함.
 -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니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부모가 외국인이거나 심지어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과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또한 그 대응방식에 있어서도 ‘참거나, 무시한다’는 응답이 절반이상이었다. 이러한 점은 당사자의 상처와 고통이 더 크게 내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다문화청소년 중 한국어로 일상대화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혀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적지 않았음.
 - 한국어로 인해 학교 수업이나 교과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다문화청소년도 적지 않았으며 이는 일상대화보다는 학교수업에서 나타남.

6) 교육부(2009),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7)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0), 경기도 다문화가정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이러한 어려움은 부모의 출신국적이 일본이나 중국인 보다는 다른 국적에서 더욱 가중되는 현상이 있음.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은 언어적 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학교진입과 적응,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한국어를 할 수 없어 학교생활 및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연령대에 맞는 학교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에 대한 이렇다 할 정보와 한국어 학습 등의 사전 준비 없이 입국함으로써 초기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학교 입학 자체의 포기 및 심리·정서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마. 학업중단의 충동경험⁸⁾

-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1/3 정도가 학업중단 충동을 경험하고 있음.
- 학업중단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율은 27% 정도였고, 중학생(33.7%)의 경우가 초등학생(20.2%)보다 더 많았음.
- 이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고,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 대한 심리적 갈등이 중학생의 경우 더 심화되는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임.
- 학업중단 충동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는 공부하기 싫어서(40.1%)와 공부가 어려워서(36.7%)를 들고 있어,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음을 예측할 수 있음.
- 학업중단 이유에 대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 중학생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공부관련 스트레스가 각각 50.0%와 41.5%로 가장 큰 이유인 반면, 초등학생은 놀림을 받기 때문(32.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공부가 어려워서(28.6%)와 공부하기 싫어서(23.4%) 순으로 응답함.
-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은 놀림의 문제로, 중학생의 경우는 학교 공부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학업중단 충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8)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0), 경기도 다문화가정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바. 사회적 편견⁹⁾

○ 거부감 및 사회적 거리감

- 또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일반 청소년의 거부감이나 배척 정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다수의 청소년들이 또래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함께 있으면 어색하다(53.3%)거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다(60.4%)고 응답하고 있으며,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28.8%)거나 왠지 거부감을 느껴 피하게 된다(17.9%)는 청소년도 상당수에 달함.
-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없는 청소년일수록 또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거부감 및 배척 정도가 더 높았음.
-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 경우, 우리 가족이 되어도 좋다(9.1%: 3.5%)거나 다문화가정 청소년도 한국인(44.0%: 31.9%)이라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인식에 더 많이 동의하고 있었고, 접촉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전혀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다(6.3%: 2.8%)거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한국인이 아니다(17.7%: 8.4%)는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가치관에 더 많이 동의하고 있음.

○ 인종 및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

- 일반 청소년들의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뚜렷하게 나타남.
- 경제적으로 강국이며 인종적으로 우위라고 인식될 수 있는 북미나 유럽 사람을 친구로서 가장 선호하고 있고, 기타 아시아나 아프리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나 유색인종은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

○ 배타적인 국가관

- 다인종 국가의 도래에 대한 높은 거부감과 배타성을 드러내고 있음.
-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단일민족국가였던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75.6%), 현재 우리나라에 혼혈인이 늘어나는 것은 단일민족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 좋지 않다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비율(70.1%) 역시 높음.
- 또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문항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응답(72.3%) 경향이 강함.

9)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0), 경기도 다문화가정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3. 다문화청소년 지원활성화 방안 제언

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정체성 및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애착 형성 지원

- 다문화청소년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이러한 사회적 귀속감은 지역사회 적응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다문화청소년이 거주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나. 교육기회의 균등적 배분과 교육 출발점 조정을 통한 교육평등의 실현

-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학업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함.
-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학교 진입 지원 및 독려, 이들의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등 다문화학생이 교육의 사각에 위치하지 않도록 교육의 균등적 배분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전술한 바,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경제적 어려움, 가정환경의 열악성 등 교육 기회 및 출발점의 비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필요.

다. 다문화적 감수성 향상 및 다문화 인식 제고

- 다문화청소년이 급증하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非)다문화청소년들의 타문화·타인종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해소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의 함양하는 국제이해교육 또는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에서 다른 사람과의 공존을 위한 의사소통 및 갈등해소에 초점을 둔 반편견, 반차별, 다문화감수성 등의 주제를 포함한 시민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됨.
- 청소년들로 하여금 타문화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자국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라.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 정책대상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나 문제 상황을 고려한 개별화·맞춤형 정책 추진
- 정책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주배경과 환경에 따라 이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다를 수 있음.
 - 다문화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의 상황은 매우 다를 수 있으며, 각자 겪고 있는 문제나 요구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대상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거부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 과정에서 대상자가 드러나게 되어 거부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정책의 대상이 단순한 수혜자로 인식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이는 정책의 대상이 지원의 수혜자로서 원하지 않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가 강요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청소년은 모두 교육소외 혹은 저소득 계층으로 낙인찍힘으로써 개인에 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폐단을 차단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비(非)다문화청소년에게 역차별의 가능성 고려
 -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상황적으로 더 어려운 비(非)다문화청소년이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의 감정을 경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은 인종, 계층, 이주배경 등을 초월하여 지역사회 내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청소년을 중심으로 모든 청소년이 균등하고 평등한 교육적 기회를 확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상호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지정토론

- ☞ 다문화청소년 현황과 시사점 13
류순희(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23
우복남(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29
김옥수(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를 기대하며 31
강완규(다문화청소년 부모)

- ☞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33
이병례(충청남도교육청 학교교육과 다문화국제교육담당 장학관)

- ☞ 2019년 충청남도 다문화청소년 지원 계획 35
정낙도(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장)

다문화청소년 현황과 시사점

류 순 희

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다문화 청소년의 개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으며, 새로운 가족 형태인 다문화가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7년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할 때,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을 하거나 인지·위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정의된 다문화가족 내의 청소년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 가. 부모 중 한 쪽이 한국인이고 다른 쪽의 외국 출신이며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 나. 한국인 부모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의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하여 외국출신과 재혼을 한 가족의 자녀,
- 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을 하면서 외국인이 본국의 자녀를 입양하여 한국으로 데려온 형태,
- 라. 한국인과 외국출신의 결혼가정에서 태어났으나 국내에서 키우지 않고 외국출신 본국에서 일정기간 성장한 후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들어온 청소년 등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연구 총괄보고서, 2013).

2)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활성화 필요성

우리 사회 다문화가정의 가정 큰 특징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중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의 다문화가정은 가족 구성형태와 지역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언어적·문화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문화를 가진 부모 밑에서 생활하는 것은 둘 중

하나의 문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수용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중 문화와 언어를 존중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이 되며 이중문화가 서로 공존하면서 장점을 발휘하면 전체적으로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중문화적응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가정과 학교의 상호관계를 돈독히 해 주는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초기연구 결과들은 다문화가정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시혜적 시각에 의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형성된 우리사회의 고정관념이 청소년이 속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소외와 편견, 차별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느끼는 차별 경험은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방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14. 문호환)

3)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본 다문화 자녀 현황

충청남도 다문화자녀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은 15,175가구로 도민의 2.3%이며, 그중 천안, 아산, 당진, 서산지역이 61.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충남 다문화가족 자녀는 11,574명으로 도민의 0.5%로 나타났으며, 그중 만12세 이하가 8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16.11.1. 인구주택 총조사기준)

(단위 : 명)

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1,574	5,912	5,662	397	191	206	11,177	5,721	5,456

[표1. 다문화가족자녀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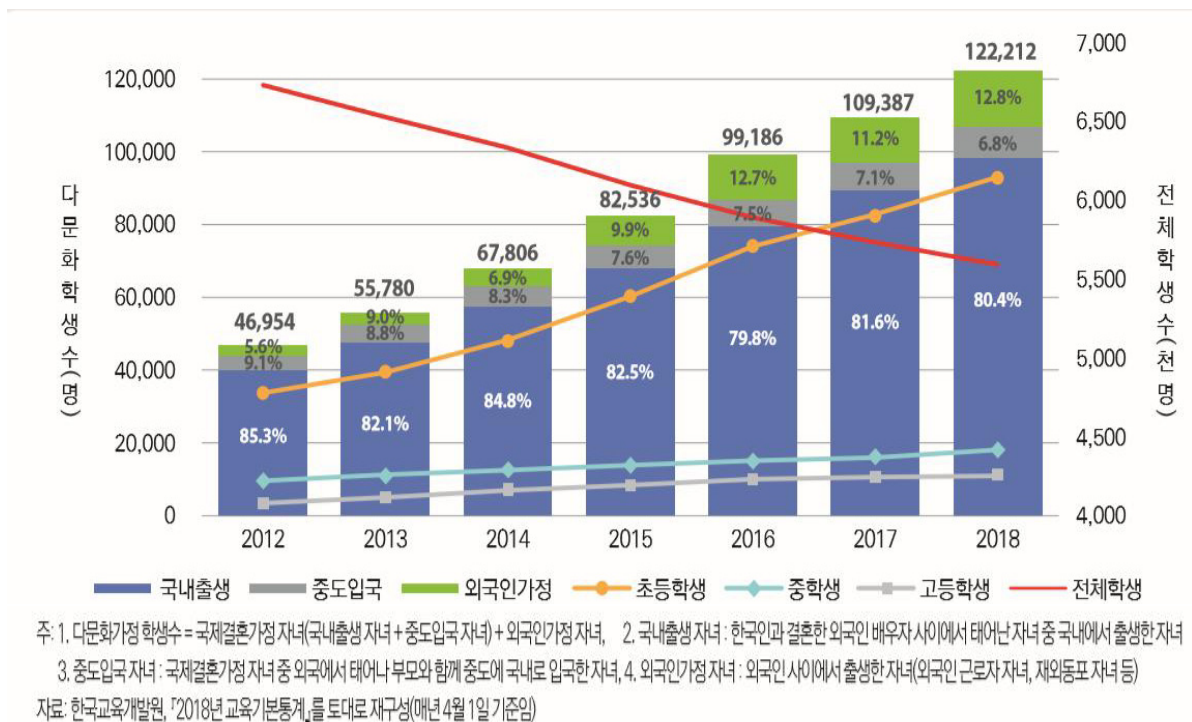
계	만6세 이하	만7~12세 (초등)	만13~15세 (중등)	만16~18세 (고등)
11,574 (100%)	6,450 (55.7%)	3,381 (29.2%)	955 (8.2%)	788 (6.8%)

[표2. 연령대별 다문화가족 자녀현황]

서산시의 경우 다문화가구수는 1,214가구(2018.6, 센터등록 가구수 기준)로 15개읍·면동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다문화자녀의 경우 서산교육지원청(2018.6. 기준)에 의하면 서산시 관내 학생 22,030명중 다문화 학생이 673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초등학생이 454명(67%)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5년 서산시다문화통계 보고서(2015.7.기준)에 의한 자녀총수1,132명으로 학교 진입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다문화자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책정착도 시급함을 인지 할 수 있다.

4)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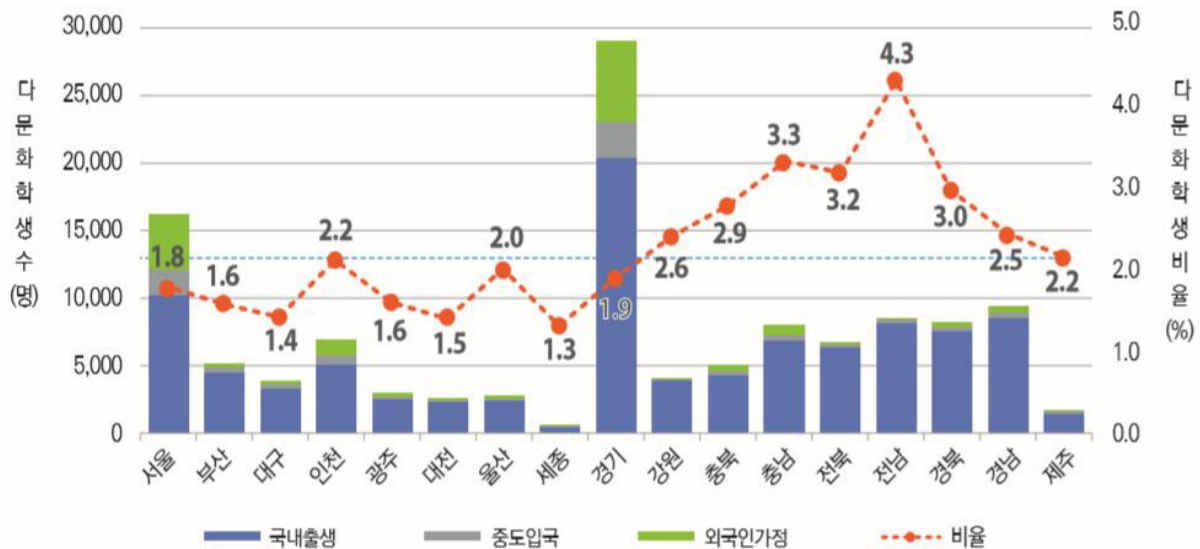
「2018년 교육기본통계(‘18.8.29)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 100명중 3명 이상이 다문화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학교현장의 교육여건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림 1. 다문화학생의 증가추이(2018년 교육기본 통계, 한국교육개발원)]

2018년 4월 기준 다문화학생수의 증가추이(그림1)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의 2.2%수준인 122,212명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하였다.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전체 학생 수는 연평균 18만 명이상씩 감소한 반면, 다문화학생은 매년 1만 명이상씩 증가하여 다문화학생의 비율도 2012년 0.7%에서 2018년 2.2%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3.4%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80%이상으로 대부분이나, 2015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가정 학생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상급학교로 갈수록 중도입국자녀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초5.4%, 중10.7%, 고12.2%) 또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76.2%로 월등히 많고, 중학생(14.8%), 고등학생(9.0%)순이며, 모든 학교급에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 2018년 4월 1일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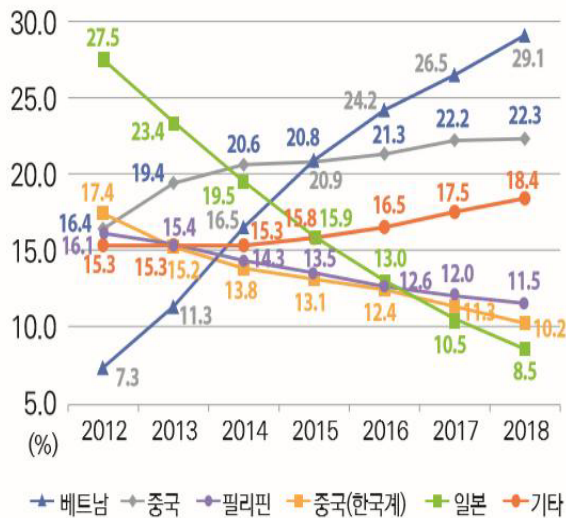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8년 교육기본통계」를 토대로 재구성

[그림 2. 지역별 다문화학생 현황(2018년 교육기본 통계,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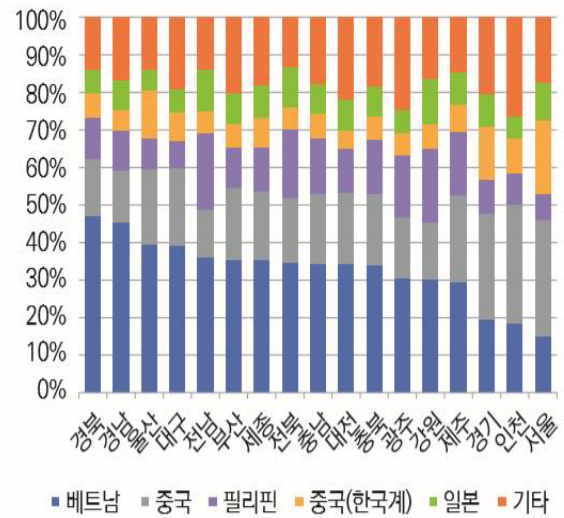
또한, 지역별 다문화학생현황(그림2)과 같이 지역에 따라 다문화학생의 유형 및 분포 양상이 다르고, 부모 출신국적별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다문화학생의 42.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3.8%)와 서울(13.3%)이며, 경남, 전남, 충남, 경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도입국 학생의 62.1%, 외국인 가정 학생의 73.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단 인근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밀집 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3%)이며, 충남, 전북, 경북, 충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도 지역은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전국 평균(2.2%)을 초과하는 반면, 시 지역은 평균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도 지역의 경우 국내출생 자녀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전북, 전남, 강원 의 경우 그 비율이 약 95%에 달하고 있다.

[부모 출신국적별 변동 추이]



[부모 출신국적별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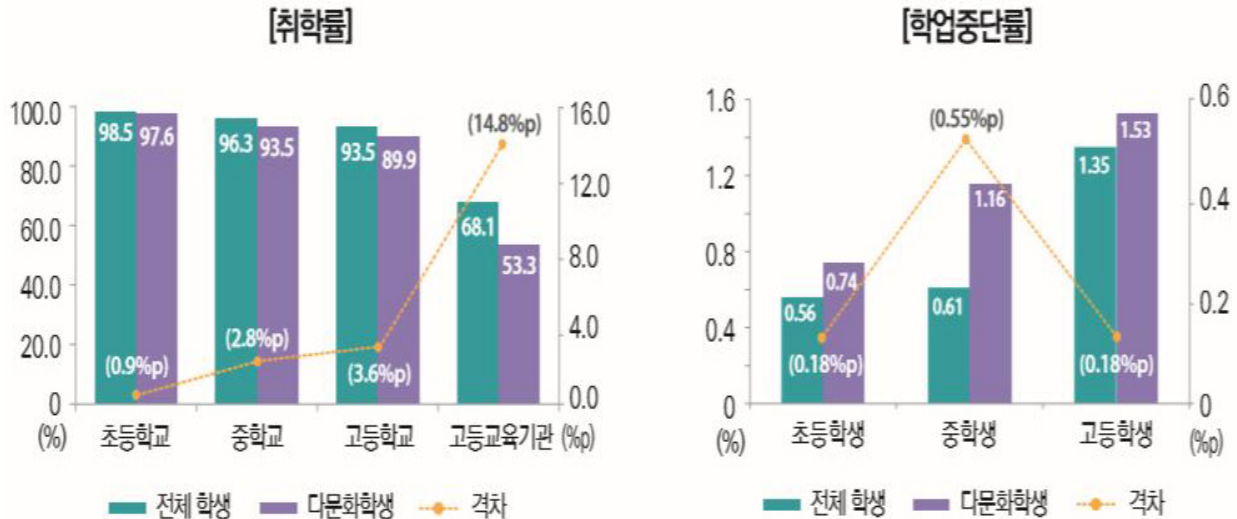
주: 1. 연도별 현황은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부모출신국 상위 5개국의 변화 추이임
 2. 기타에는 대만,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그밖의 국가를 포함함
 3. 지역별 현황은 다문화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부모출신국(베트남)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2018년 4월 1일 기준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7교육통계분석자료집」을 참고하여, 「2018년 교육기본통계」를 토대로 재구성

[그림 3. 부모출신국적별 변동추이 및 지역별 분포(2018년 교육기본 통계, 한국교육개발원)]

부모 출신국적별 다문화학생 현황을 살펴보면(그림3) 일본은 2012년 27.5%에서 2018년 8.5%로 급감한 반면, 베트남은 2012년 7.3%에서 2018년 29.1%로 4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중국(한국계포함)은 꾸준히 1/3수준을 유지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모 출신국적별로는 베트남과 중국(한국계포함)의 비율이 전체 61.6%에 달하며 국가별 비중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큰 기타 다양한 국가 출신 부모를 둔 자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 부모 출신국적별 집중화 현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영남권에, 중국은 수도권에, 필리핀은 강원/호남권에 집중 거주하며, 일본은 비교적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주민들은 같은 국가 출신이 많은 지역으로 대거 진입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학생의 취학률 및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그림4), 다문화학생은 전체 학생에 비해 취학률이 낮고 학업중단율은 높으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그 격차가 심화되어 고등교육으로의 진입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 취학률(%): (해당연령대 취학아동/취학적령인구)×100
 2. 학업중단률(%): (학업중단자수/재적학생수)×100(학업중단자수는 '16.3.1.~'17.2.28., 재적학생수는 '17.4.1. 기준임)
 3. 재적학생: 재학생과 휴학생의 합(결업, 중퇴, 수료 등은 제외)
 4. 학업중단: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질병,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 및 면제자(질병, 해외출국), 고등학교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불행사유), 제적, 유예 및 면제자
 5. 취학적령: 초등학교(만 6~11세), 중학교(만 12~14세), 고등학교(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만 18~21세)
 자료: 취학률은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여성가족부, 2016.)을, 학업중단률은 교육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림 4. 취학률 및 학업중단률(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 여성가족부)]

2015년 기준 취학률 격차를 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0.9%p차이로 미미하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어(중2.8%p, 고3.6%p)고등교육 단계에서는 14.8%p 달하며, 2016년 기준 학업중단률 격차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0.18%p차이로 크지 않으나, 중학생의 경우는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률(1.16%)이 전체중학생(0.61%)보다 2배 가까이 나타났다.(중도입국 청소년실태 및 자립지원방안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 2016.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 중 공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다문화 정책학교, 교육지원시설, 전담교원 등의 역할과 정책적 비중을 다르게 설정하고, 지역 특화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전담교원 및 지원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일반학생들이 참여하는 이중언어교육 및 글로벌 문화이해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의 강점을 강화 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며 교사 연수 및 양성과정을 개선하고, 교육과정 내에 다문화이해교육을 확대하는 등 전체 교원 및 학생들의 다문화인식개선과 수용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사춘기 다문화학생에 대한 정서 상담과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여 고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언어절벽 등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큰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문화학생의 교육 실태와 교육격차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다문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통계〉

① 서산시다문화가정 학생수 현황(2018.4.1.)

(단위: 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체	
총	다문화	총	다문화	총	다문화	총	다문화	총	다문화	총	다문화
2,065	91	10,195	454	4,755	93	4,837	35	178	0	22,030	673

②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현황

다문화 유치원(1)	예비학교(2)	중점학교(8)
차동초 병설유치원	차동초, 부석중	고북초, 음암초, 부성초, 팔봉초, 오산초, 서산동문초, 서산석림초, 서산석림중

③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교육통계, 교육부, 매년 4.1 기준)

○ 학교급별(초·중·고) 다문화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국내출생	50,279	11,075	6,745	68,099	59,988	11,489	7,657	79,134	68,610	12,265	8,439	0
중도입국	3,988	1,393	880	6,261	4,583	1,627	1,208	7,418	4,843	1,722	1,227	0
외국인 자녀	6,016	1,397	763	8,176	9,453	1,989	1,192	12,634	9,280	1,958	1,043	0
계	60,283	13,865	8,388	82,536	74,024	15,105	10,057	99,186	82,733	15,945	10,709	109,387
비율	73.0%	16.8%	10.2%	100%	74.6%	15.2%	10.1%	100%	75.6%	14.6%	9.8%	100%

○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 전체 학생 수 감소(25%↓), 중학교(5.2%↓) 및 고등학교(4.7%↓) 감소가 주 영향
- 다문화 학생 수 매년 10% 이상 증가, 처음으로 10만명 넘어섬.

(단위 : 명)

인원수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다문화 학생 수(A)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109,387
전체 학생 수(B)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6,097,297	5,890,949	5,773,998
다문화학생 비율 (A/B*100)	0.44%	0.55%	0.70%	0.86%	1.07%	1.35%	1.68%	1.89%

○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현황(최근 4년)

연도	구 분	초	중	고	계
'13년도 ('13.3 ~ '14.2)	재학생수	39,430	11,294	5,056	55,780
	학업중단자수 (부적응)	328 (78)	140 (66)	104 (68)	572 (212)
	학업중단율 (%)	0.8 (0.2)	1.2 (0.6)	2.1 (1.3)	1.0 (0.4)
'14년도 ('14.3 ~ '15.2)	재학생수	48,297	12,525	6,984	67,806
	학업중단자수 (부적응)	435 (110)	146 (75)	107 (73)	688 (258)
	학업중단율 (%)	0.9 (0.2)	1.2 (0.6)	1.5 (1.1)	1.0 (0.4)
'15년도 ('15.3 ~ '16.2)	재학생수	60,283	13,865	8,388	82,536
	학업중단자수 (부적응)	423 (86)	159 (65)	118 (85)	700 (235)
	학업중단율(%)	0.7 (0.1)	1.15 (0.5)	1.41 (1.0)	0.85 (0.3)
'16년도 ('16.3 ~ '17.2)	재학생수	74,024	15,105	10,057	99,186
	학업중단자수 (부적응)	547 (84)	178 (78)	154 (121)	876 (283)
	학업중단율(%)	0.74 (0.11)	1.16 (0.52)	1.53 (1.20)	0.88 (0.29)

- *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자 수, 중단율 () : 질병, 해외출국을 제외하고 가사, 학업, 대인관계, 교직, 품행, 기타 사유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 학업중단율
- * 전체 학생 학업중단율('15 : 초 0.5, 중 0.6, 고 1.3, 전체 0.8)

④ 부처별 ‘중도입국자녀’ 관련 통계

부처	통계 항목	주요 개념	규모	출처
여성 가족부	외국성장자녀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오래 성장한 자녀 (만9세 이상~24세 이하)	12,782명	’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교육부	중도입국학생	중도입국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 인 자녀	7,792명	’17년 교육통계
법무부	중도입국자녀	한국으로 결혼이민 온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해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및 귀화한 미성년자녀 (만18세 이하)	8,637명	’17.4월년 법무부 제공 자료 (비자 종류로 집계)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우 복 남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I. 용어

1. 이주배경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명시된 용어, 한국국적, 체류자격 무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2. 다문화청소년

○ 처음 ‘다문화자녀=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 이후 다양화

- 결혼/노동 이주, 재외동포 등 다양한 이주자 가정
- 한국계/비한국계, 전문/비전문 노동, 방문취업/재외동포
- 탈북청소년 등

○ 법률/정책용어가 아니며, 사용자마다 달리 사용하는 현실로, 정책 대상 정의, 유형별 접근 필요

- 우리 지역 다문화청소년 정책 대상은?

(국제결혼가정만? 이주노동자가정도? 미등록도? 만17세까지만? 만24세까지?)

(북한/3국 경우 입국한 북한계 청소년도?)

=> 대상범위에 따라 법/제도와 정책, 담당부서/서비스전달체계가 달라지는 실정으로 먼저 정책대상 범위 설정 필요

II. 충남 현황

1. 충남 외국인주민 현황(2017. 11. 1.기준)

- 외국인주민 : 충남 비율상 1위, 수로 4위
 - 104,854명(한국국적취득 7,474+한국국적미취득 84,752+국내출생 미성년 자녀 12,628명)
- 2016년 대비 2017년 9,301명 증가
- 등록 0~18세 13,021명 중
 - 국제결혼 국내출생 자녀(출생한국인) 12,628명
 - 귀화 혹은 아직 외국인 신분 자녀 393명

2. 충남 다문화 학생 수

- 2018.4.1.기준 충남 재학 다문화 학생 수 8,054명(교육기본통계): 유치원 제외
 -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6,833명
 - 초중고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 1,221명(418+803)
(초중 학생 1,114명: 중도입국 361+외국인가정 753)
- 2018.12. 9,300명(교육청 보도자료): 유치원~고교생 3.4%
 -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4.27%)에 이어 2위

3. 충남 0~24세 등록외국인 (법무부 등록외국인 현황 2018.9)

(아동복지법[0~17] 및 청소년복지법[9~24] 정책대상)

- 충남 아동/청소년 정책 대상 등록외국인: 0~19세 4,766명, 0~24세 15,087명
- 충남 등록외국인 아동 5~14세(초~중) 1,621명, 5~19세(초~고) 3,210명

=> 중고생 학령기 청소년 증가, 다문화정책이 청소년정책을 만나야 할 때

- 2005~2007년 국제결혼피크, 이후 출생자 중등학령, 이전 출생자 후기청소년
- 2012년 방문취업(한국계동포노동자) 미성년자녀 동반허용으로 청소년 입국증가

=>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 정책 확대 필요

- 초~중학교 대상연령 약 1600명 /초~고교 대상 약 3200명 중 현재 재학 귀화/외국인신분 학생 약 1,200명으로, 학령기 등록외국인 아동청소년 중 약 400~2,000명 학교 밖에 존재
- 외국국적동포, 미등록 이주 아동 포함 시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더욱 증가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상 0~17세 아동, 청소년복지법상 9~24세 지원 대상

III. 다문화 청소년 관련 실태

- 가정 빈곤: 다수 빈곤층 존재
- 자녀양육: 이혼, 사별 한부모가정 양육여건, 양육비 문제
- 정체성, 심리정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외로움, 정체성 혼란 문제
- 교육: 학교부적응, 차별과 따돌림 문제
 -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공교육 진입, 학교적응 어려움
- 학업중단: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학생 33.7% 학업중단충동 경험
 - 공부하기 싫어서+공부 어려워서 76.8%(경기도 2010)
- 사회적 편견: 인종/국가에 대한 편견/고정관념, 배타적 국가관
 - 어색하다 53.3%, 낯설다 60.4%(경기도 2010)
 - 외국인이 늘어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 72.3% (경기도 2010)

=> 전체적으로 동의

=> 우선적 정책적 수요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 필요

※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IV. 다문화 청소년 지원 활성화 방안 제안

- 정체성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애착 형성
 -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 소속감을 느끼게 지원
- 교육기회의 균등적 배분과 교육출발점 조정을 통한 교육평등 실현
 - 교육기회 소외 예방, 학업 지원, 중도입국청소년 학교진입과 한국어 교육지원, 가정환경의 열악성 등 교육출발점 비평등 해소 등
- 다문화적 감수성 향상 및 다문화인식 제고
 - 비다문화 청소년들의 타문화 타인종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해소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글로벌 역량강화+공존의 소통/갈등해소 시민교육(반편견, 반차별, 다문화감수성 등)

○ 지원정책 추진 시 유의사항: 개별화 맞춤형 정책 추진

- 이주배경과 환경에 따라 처한 상황이 다르고, 문제와 요구에 차이 존재 가능
- 대상자 부각, 수치심 유발 차단
- 불필요한 서비스 강요 차단
- 모두가 교육소외 혹은 저소득 계층으로 낙인찍힘 주의
- 비다문화청소년의 상대적 박탈감, 역차별 감정 부작용 차단
- 인종, 계층, 이주배경 등을 초월하여 지역사회 내 자원이 필요한 다문화청소년을 중심으로 모든 청소년이 균등하고 평등한 교육적 기회 확보, 상호문화적 가치 이해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전체적으로 동의

○ 새로운 정책사업 확대 시 나타날 수 있는 ‘집단 획일화의 우’ 유의

(정책발전의 역사 자체가 편견/획일화/시혜적지원에서 시작해서 개별화/보편화로 가능과정)

-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연구 V:다문화청소년 발달 추이 분석」, 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2011~2016) 분석결과
- 일률적 해석 지양, 결핍된 존재로서의 고정관념 탈피, 선별적 지원 해소, 중학교 시기 심리정서 지원강화, 통합적 관점 지원, 경제적 어려운 여건 청소년에 대한 물질지원 확대

○ 경제적 침체기를 겪으며 심화될 우려가 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 예방/감소, 사회통합을 위해서 섬세한 지원 설계 필요

- ※ 여성, 노인, 장애인 보다 더 쉬운 표적이 이주민
- ※ 이미 우리사회에서도 이주아동도 차별/배제의 예외가 아닌 상황

=> 추가 제안

○ 진로/진학 관련 사업 전문성강화 조치 시급(사례발굴과 개선 등 역량축적 필요)

- 진로탐색→직업체험→교육/훈련→인턴/취업→고용유지 등 체계적 관리
- 일반 청소년, 성인 구직자 등과 겹치지 않는 직종/직업 발굴도 중요

- ※ 「학교 밖 외국성장 청소년의 진로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7:93)
- 체류안정과 공교육진입 지원+직업교육과 인턴십 등 사회진출 시급
- 현재의 진로교육은 초기 단기적응과 체험위주 프로그램으로 편성, 후속프로그램 개발과 연계시급

○ 연계와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확대

- 학교+다문화/가족 부서+청소년 부서 협력 강화 : 학교 안 + 학교 밖 포괄
- 다문화/가족 기관 + 청소년 상담/진로 기관 + 일자리 기관 : 전문성 강화
- 현행 청소년 관련 충남조례에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 항목 명시 개정 추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시행 2017. 6. 7.]제5조(청소년육성사업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9.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

○ (어쩌다) 미등록신분으로 추락한 이주노동자 자녀, 무국적자 이주아동 권리 보장 수준, 정책화 단계 논의

－ 현행 충남 다문화가족 조례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한계

※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시행 2014.7.10.] 제6조(지원대상)

① 본 조례는 도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김 옥 수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8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생의 2,2%인 122,212명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30년후에는 농어촌지방 대부분이 소멸할 수 있는 위험성 까지 내포하고 있으며, 조만간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30% 정도를 육박하여 경제 활동 인구가 턱 없이 부족한 허약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찌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 결혼하여 이주해 온 젊은 여성이 바쁜 농촌 일손을 덜어내고, 끊겼던 아이 울음소리를 다시 되찾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그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이들이 곧 우리들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원은 주로 결혼하여 이주해 온 어머니나 외국인들, 그리고 육아정보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성장하고 있는 다문화 자녀들에게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의회에서도 국가의 미래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폭 넓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은 일반 청소년들과 동일한 지원 내에서 하되, 선별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지원하는 『이중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정의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마을 및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우리 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 아이를 우리와 같은 이웃으로 인정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야 하고, 외모가 다른 그 청소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게 정책 제안을 해 주시면 충청도 의회는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며, 풀어야 할 산적한 난제들은 지역 실정에 맞추어 하나씩 공유하고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거기에 저와 충청도의회가 적극 동참 할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거듭 약속드립니다.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 완 규

다문화청소년 부모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Blank lined paper for writing.

다문화청소년 지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 병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교육과

다문화국제교육담당 장학관

2019년 충청남도 다문화청소년 지원 계획

정 낙 도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팀장

2018년 「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실적과 2019년 개선방향 및 주요사업 내용임

□ 업무여건

- 충남의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주민은 '16년 9만6천여명에서 '17년 10만 5천여명으로 약 9천여명이 증가 급격한 세계화를 이루고 있음
- 만 18세이하 다문화청소년은 2009년 6,399명에서 2017년 13,021명으로 최근 8년간 2배 증가 도민의 0.6%를 차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 지원이 절실함
- ⇒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

□ 2018년 추진실적

- 국비보조사업인 다문화 특성화사업, 도 자체사업인 다문화활성화, 다문화어울림, 외국인주민 안전교육, 다가족다문화 어울림축제 등 각 사업 분야에 다문화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였음.

분야	주요내용
다문화 특성화사업 (국비사업)	·자녀언어발달지원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지원 ·한국어 교육 :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생활 적응 및 의사소통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 : 영유아기부터 이중언어 습득 활용
다문화 활성화사업	·충남 다문화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 : KAIST, 교육청과 MOU를 체결 다문화 영재 40명을 선발 멘토·멘토링 연결 및 영재교육
다문화 어울림사업	·다문화가족자녀 글로벌 인재 양성 : 다문화 청소년들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대표과제 : 자녀, 가족문제 등 시·군별 맞춤형 프로그램
외국인주민 안전교육	·다문화자녀 재난안전교육 : 안전체험관을 활용하여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교육
다가족다문화 어울림축제	·문화체험 :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의 교류기회 제공

□ 2019년 주요사업

○ 충청권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

- 충청권 대학들과 MOU를 체결 학문, 예체능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수들이 재능이 있는 다문화청소년들과 일반가정 청소년들을 선발, 지도하고 함께 어울려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기존 다문화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 보다 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 시·군별 맞춤형 다문화청소년 지원프로그램 발굴

- 다문화어울림 사업중 각 시·군별 지역적 특성에 맞게 다문화청소년지원프로그램을 전문가 컨설팅, 외국인주민(충남다문화정책자문회의)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추진

○ 다문화청소년 안전체험 교육

- 한서대 등 도내대학과 협력하여 기존의 단순체험 위주의 교육에서 생존수영 등 실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습득

○ 다가족 다문화 페스티벌

- 청소년들이 음식, 의상, 놀이 등 세계문화를 체험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함께 어울릴수 있는 기회 마련

○ 아산시 신창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 설치

-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이 22%로 급격한 세계화를 맞이하고 있는 신창지역에 중도입국자녀로 인한 청소년 문제 증가로 분원을 설치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

□ 향후계획

○ 중도입국 자녀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교육청과 협력하여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이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자녀들의 이중언어능력 지원

- 다문화청소년의 일반청소년과의 가장 큰 경쟁력인 이중언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다문화어울림사업에 이중언어능력지원 비율을 확대

참 고

□ 다문화가족 : 51,757명 (도민의 2.4%)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15,636명, 배우자 17,312명, 자녀 13,021명, 기타 동거인 5,788명

①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 15,636명 (도민의 0.72%)

(단위 : 명)

계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5,636	1,919	13,717	8,162	916	7,246	7,474	1,003	6,471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지·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
 ※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대상자 포함

《시군별》 : 천안, 아산, 당진지역이 55.4%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5,636	4,346	816	652	2,903	1,135	927	101	1,411	519	525	384	274	664	634	345

※ 총인구 대비 결혼이민자등 비율은 금산 0.93%, 청양 0.88%, 아산 0.86% 順

《국적별》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이 82.7%

계	베트남	중국(한국계)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몽골	대만	미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인도네시아	기타
15,636	4,486	3,853	3,207	1,391	635	553	243	177	176	153	148	98	52	464

❖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 최근 9년간 1.8배 증가

(단위 :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8,614	9,544	11,294	12,348	12,649	13,460	14,035	14,863	15,636

② 다문화가족 자녀 : 13,021명 (도민의 0.6%)

(단위 : 명)

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3,021	6,640	6,381	393	185	208	12,628	6,455	7,173

※ 집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자녀 포함

《연령별》 : 만 12세 이하가 89.7%

계	만6세 이하	만7~12세(초등)	만13~15세(중등)	만16~18세(고등)
13,021 (100%)	6,543 (50.3%)	5,130 (39.4%)	864 (6.6%)	484 (3.7%)

❖ 연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 최근 8년간 2배 증가

(단위 :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6,399	6,953	9,119	10,023	11,010	11,863	10,908	11,574	13,021

제 회 모